

교환학생 귀국 설문조사서

파견 학교 : University of Graz (그라츠 대학교)

파견 기간 : 2025. 10. 1 - 2026. 01. 30

이 름 : 최 * 희

학 과 : 경영학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을 제외한 이름 중 한 글자를 반드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출국 전 준비사항

1. 해당 자매교로 파견을 나가기 위해 지원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나 자료가 있다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실상 1순위 대학인 그라츠 대학교에 맞춰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전공 과목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흥미로운 과목을 언급하기도 하고,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해당 대학에 관심이 많음을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제 희망 진로와 엮어서 교환학생 생활과 특히 그라츠 대학교에서의 배움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적었습니다.

2. 해당대학에 관련된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충분한 도움이 되었습니까? 다음 참가 학생들이 해당학교의 교환학생 파견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블로그 등에 그라츠대학교 파견 후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다들 자세하게 작성해주셔서 정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자는 1-2주 정도로 금방 나오는 편이지만 한 달 뒤 예약이 가능하다는 등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예약하면 비용이 덜 들지만 저는 예약을 꼭 해야 했기 때문에 대행사를 통해서 돈을 내고 예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혹시 몰라서 많이 챙기는 스타일이라서 짐을 싸는데 너무 많은 힘을 들였는데 솔직히 Tedi 등 다이소 같은 곳이 있어서 웬만한 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양념, 라면, 참치캔, 볶음김치캔, 전자레인지 밥솥 등 음식과 관련한 것들은 챙겨오시는 걸 추천해요. 여기서도 팔긴 하지만 가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옷은 여기와서도 구매하게 되니까 꼭 자주 입는 것만 몇 벌 챙겨오세요. 저는 너무 많이 챙겼다가 몇 번 입

지 않은 옷도 많아서 조금 후회했어요. 또, 그라츠는 오스트리아에서도 남부에 있어 겨울에도 크게 춥지 않고 눈도 많이 쌓이지 않는 곳입니다. 가끔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분무기로 뿌리는 정도라 살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해가 들 때면 정말 더우니 여름에 파견되시는 분들은 잘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냈던 OeAD Neubaugasse는 선풍기는 있지만 에어컨은 없어서 9월인데도 낮에는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제가 다락층이라서 사선으로 창문이 나 있었는데 낭만도 있고 참 좋긴 하지만 유난히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창문에도 블라인드 달아준다고 하니까 좀 더 편찮을 것 같긴 합니다. 마스크(일반, 기내용), 상비약도 챙기세요.

3. 해당대학에서의 수학 분야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본 전공으로 지원을 해야 (ISEP 프로그램) 희망 대학 파견에 유리하다고 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4.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스트리아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이 가능한데 '여권, 비자 신청서, 여권 사진, 왕복 항공권 예약 확인증, 숙소 확인서, 보험 가입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기준 확인), 오스트리아 대학 측 입학허가서, 재학 중인 한국 학교의 재학증명서'를 구비해가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적어도 원하는 날짜 한 달 전에는 예약을 시도하셔야 원활히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5. 항공권은 언제쯤 어떻게 구매하였습니까?

파견 3개월 전에 구매했습니다. 더 일찍 구매해도 좋았을 것 같긴 같지만 China Airlines에서 왕복 98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스카이스캐너에서 항공사별 가격을 비교한 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했습니다.

B. 해당대학에서 수학하면서

1. 해당대학과 우리대학의 체제상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이 의견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한국과 비슷하게 굳이 나서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할 말이 있으면

손을 들어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전반적인 수업의 분위기였습니다.

2. 다음 부분에 있어서 해당대학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 수강신청 방법 : 학과별로 메일로 수강신청에 대한 안내 세션을 안내해 주십니다. 수업 형식이 특히 한국과 다르게 대형강의, 학생 참여형 세미나 등 다양한데 수업 형식에 대한 설명과 수강 신청 일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과목 별로 수강신청이 열리는 날짜와 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미리 관심 과목의 일정을 알아두고, 시간에 맞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선착순인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인원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대기로 들어가며 수업 첫날에 꼭 참석하셔서 빈 자리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근히 첫날에 안 오는 경우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첫날에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첫날 결석자가 있어서 꽤 많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업 등록 대기자에서 등록되는 걸 봤어요!

- 수업시간 : 1-2시간

- 수업형식 (예: 강의, 세미나, 개인지도, 랩, 기타) :

보통 대형 강의 형식을 추천하긴 하는데 저는 마케팅 수업을 들어서 전부 세미나형(팀플, 수업 참여) 수업이었습니다. 팀플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수업 듣기 보다는 외국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 수업의 난이도 : 중하

내용 자체는 쉬운데 참여 점수를 위해 질문에 대답하고 팀플의 비중이 컸던 게 컸습니다. 내용은 한국에서 들은 내용도 많아서 쉬웠어요.

- 수업참여도 및 출석 관련 : 매번 출석도 체크하고, 참여도 비중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옆 나라 독일은 출석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스트리아는 아닙니다. 대신 대형강의는 출석 괜찮더라고요.

- 시험 : 중간고사는 안 보고 기말고사만 보는 수업도 있고, 팀플 발표 대체도 있습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웬만하면 수업때 내용 그대로 나오는 편이라 생각보다 훨씬 쉽고 부담 없습니다.

- 과제량 : 팀플 때문에 매주 제출해야 하는 수업이 두 개 있었습니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신경 안쓰고 여행 잘 다녀왔어요!

- 이수학점 (본인 총 이수학점) : 9학점 (22 ECTS)

3. 본인이 수강한 과목 중 후배들에게 추천하고픈 과목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Data Strategies for Marketing and Innovation' 30명 정도되는 수업이고 참여형 수업(세미나)라서 그런가 동양인이 저밖에 없었는데 딱히 부담스럽지도 않고 다루는 주제가 최신 마케팅 기술 관련이라서 흥미로웠습니다.

'Information Systems'라는 수업은 팀별로 수업 파트를 맡아서 공부하고 정말 간략하게 핵심만 추려 ppt로 만들어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초반에 겁을 주시면서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수업이라고 하시는데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수업이 1시간이면 끝나고 30분이면 끝날 때도 있습니다. 온라인(발표 디벨롭) 주간이 격주로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추천! 영어로 발표해야 하지만, 그것만 연습하면 부담도 크게 없습니다.

4. 수업내용은 만족스러웠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 여러 나라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특히 좋았습니다.

5. 해당대학에 학습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공부를 도와주는 건 아니었지만, ESN에서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버디와 함께 여러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현지 적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6.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까? 수강 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수강하지 못했다면 무슨 이유였습니까?

저는 운 좋게도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다 들을 수 있었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니 선착순으로 과목 신청을 하는 거라 안된 친구들도 있었어요. 한국처럼 초시계를 틀어놓고 티켓팅을 하는 정도의 치열함은 아니지만 그냥 신청주간이 시작될 때 서둘러서 신청하면 됩니다.

7. 본인이 수강한 과목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적어주세요.

과목명	강의내용	참고사항
German Intensive Course	독일어 기초	시험, 말하기 테스트
Marketing and Innovation	마케팅 신제품 아이디어 제안, 매주 주제를 디벨롭	팀플 (기말 프로젝트)
Applied Data Analysis in Business and Marketing	SPSS 프로그램	2인 팀플 (보고서)
Information Systems 2	정보시스템 각자 파트 공부해서 발표	팀플 (발표 2번)
Data Strategies for Marketing and Innovation	마케팅과 관련한 기술, 최근 이슈	팀플

8. 해당대학의 학습 분위기 및 관습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당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엄청 활발하게 토론하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큰 부담은 없고 그래도 의견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라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업 중간에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지만, 여기서는 분위기 따라 자유롭게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팀플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라도 영어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큰 부담은 없었어요.

C. 생활환경에 대해서

1. 현지의 숙소는 어떻게 정하였습니까?

ISEP 프로그램에서는 OEAD Neubaugasse에 혼성 6인 플랫 - 2인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셔서 제가 따로 고민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같은 프로그램인 다른 친구가 다른 기숙사길래 물어보니까 돈을 더 내고 다른 원하는 기숙사를 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같은 OEAD이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Neubaugasse에서 한 달에 19만원 정도 돈을 조금 더 내고 1인실을 사용했어요. 완전 추천입니다. 공유 공간이 있어 외롭지도 않고, 1인실로 편하게 지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낸 곳이 바로 옆에 마트 체인점 SPAR, HOFER, BILLA 모두 위치해있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KDAG kebab 옆에 있는 ADKAG Erdal(마트)를 추천해요. 채소가 싸고, 닭고기도 엄청 싸게 구할 수 있어요.

2.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선택범위와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입니까?

굉장히 기숙사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OEAD를 통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주변 한국 친구들은 STUWO(스투보)에서 대부분 지내더라고요. 2인으로 같이 생활하고, 작은 주방, 화장실만 공유하고 각자 1인실입니다. 공유 주방으로 큰 공간도 있는데 좋아보였습니다~ 그래도 학교까지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아요. 제가 지냈던 곳은 학교까지 버스 10분, 중앙역까지 버스 10분으로 대만족입니다. 창문으로 그라츠의 랜드마크인 시계탑이 보여서 좋아요~. 비용은 1인실 기준 매달 520유로(83만원)입니다. ISEP에서 2인방 기준 금액으로 생활비를 대신 지불해줘서 저는 차액인 115유로(19만원)만 내면 돼서 대만족입니다.

3.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식사와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저는 매달 350유로(56만원 정도)를 식비로 지급받았습니다. 80%는 초반에 받고, 나머지 20%는 출국 한 달 전에 받았어요. 저는 한식을 너무 좋아해서 아시아 마트도 꽤 가고, 마트에서 장을 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었더니 식비가 많이 줄더라고요. 게다가 맛있는 식당이 거의 없어서 그냥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먹는 게 좋았어요. 요리가 귀찮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네요.

4. 현지에 머무르는 동안 건강상태는 양호했습니까? 해당대학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해당대학에서 요구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가입조건은 무엇입니까?

오스트리아는 비자를 신청할 때부터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서 아플까봐 엄청 걱정하고, 다양한 약을 엄청 챙겨갔는데 한번 크게 몸살이 왔던 것

빼고는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플랫 메이트가 심한 감기/폐렴?에 걸려서 엄청 기침하고 다녔는데 바로 옮았어요ㅠㅠ 마스크 꼭 챙기세요) 후시딘, 밴드,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5. 현지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이 있었습니까? (예: 음식, 옷, 개인 위생품, 기타)

우리나라에서 준비해 가야할 물품 또는 두고 가도 되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 준비할 것: 팔도 비빔장, 육수 한 알, 양념(비싸니까), 자주 입는 옷만 몇 벌, 전자레인지용 밥솥, 화장실 슬리퍼, 참치캔, 드라이기
- 두고갈 것: 햇반, 탐폰(가성비 굿), 불닭 소스 (굳이 싶었음), 옷걸이

6. 컴퓨터나 도서관, 기타 해당대학의 시설물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딱히 컴퓨터를 쓸 일이 없었는데 도서관은 편하게 가서 이용하면 됩니다. 특히 저는 이 학교의 도서관이 해리포터처럼 예뻐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그 공간은 좁긴 했지만 낭만 있어서 좋았어요.

7. 해당대학의 학생들과의 교제는 원활하였습니까?

매주 수요일에 ESN으로 어울릴 기회가 있고, 팀플을 하면서도 대화 나누고 재밌게 지냈습니다. 팀플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D. 지출경비에 대해서

1. 학교에서 보낸 시간과 여행 또는 관광하는데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보고 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최대한 학교 가는 날을 적게 하려고 했는데 화수 거의 12시~5시까지 하루에 두과목씩 총 4과목 수업을 들었고,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주변을 돌아다니고 여행했습니다.

2. 해당대학에 머무는 동안 지출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총 지출금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숙박 및 식비 : 숙박(1인실 초과금 19만원*5개월) 95만원, 식비 0원 (전부 지급받은 생활비로 해결)

3. 해당대학에서 지출한 금액과 항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해당대학의 부대 서비스, 각종 시설물, 컴퓨터 및 도서관 이용 관련 등)

없음

4. 현지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온라인으로 개설하려다 자꾸 오류가 나서 직접 은행에서 진행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미리 방문을 예약하고, 학교 acceptance mail, 거주 등록 서류, 여권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가면 40분 정도 꽤 오래 걸리는데 담당 직원분이 친절히 안내해 주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귀국하기 전에 계좌를 닫고 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잘 안되는 것들이 많으니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E. 후배를 위하여

1. 다음 참가자들이 해당대학의 교환학생 준비를 하는데 추천하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여행책자, 소설, 신문, 영화 등)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비포 선샤인 시리즈를 꼭 보라고 추천해줬는데 그걸 본다면 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빈(비엔나)가 배경으로 나오고, 또 잘츠부르크가 배경인 '사운드 오브 뮤직'도 추천합니다. 잘츠부르크에는 사운드 오브 뮤직 뮤지컬로 너무 재밌으니 추천해요. 이런 식으로 여행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즐겨보면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갈 때마다 gemini를 이용해서 가이드로 썼는데 꽤 재밌는 얘기도 많아서 좋았어요. 유명한 작품들도 많으니 찾아다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학생일 때 할인 받을 수 있는 유적지, 미술관 등이 많으니 최대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2.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조언, 비판, 제안을 써 주십시오.

없음

3.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느낀점(스스로 만족 또는 불만족)이 있다면 간단히 서술해 주십시오.

저는 12개국을 틈틈이 여행하며 힘들 때 기억하며 힘낼 수 있는 평생의 추억을 얻었습니다.

서울에서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게 살다가 여기와서 여유를 즐기고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며 제 세상을 넓혀본 기억이 참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취업 준비나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대학생때만 할 수 있는 이 경험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스스로에 대해 알아보고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영어도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많이 쓰게 되어서 자신감도 많이 붙었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소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습니다. 지내다보면 당황스러운 일이 갑자기 생겨나는 경우가 많은데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배우는 게 많아서 교환학생 생활은 이것만 해도 정말 큰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여러분이 작성하는 본 설문지는 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대학 : University of Graz 파견기간 : 2025-2학기 성명 : 최*희

※ 작성 시 유의사항

- 설문지 제출확인을 위해 성명 표기를 반드시 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성을 제외한 이름 중 한 글자를 *처리 해주기 바랍니다.
- 괄호 안에 √표시를 하거나 의견을 서술해 주세요.
- 작성 후 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커뮤니티-해외체험수기에 직접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1. 다음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외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점 매우 도움됨 (√)	4점 도움됨 ()	3점 보통 ()	2점 도움되지 않음 ()	1점 전혀 도움되지 않음 ()
------------------	---------------	--------------	-------------------	----------------------

1-2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해외건문 확장 및 진로설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점 매우 도움됨 (√)	4점 도움됨 ()	3점 보통 ()	2점 도움되지 않음 ()	1점 전혀 도움되지 않음 ()
------------------	---------------	--------------	-------------------	----------------------

1-3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친구나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5점	4점	3점	2점	1점
----	----	----	----	----

적극 추천 (√)	추천 ()	보통 ()	반대 ()	절대 반대 ()
-----------	--------	--------	--------	-----------

2. 다음은 현지 교육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파견기관은 어디입니까? (University of Graz)

2-2 현지 수업의 방식과 질은 만족스러웠습니까?

5점 매우 만족 (√)	4점 만족 ()	3점 보통 ()	2점 불만족 ()	1점 매우 불만족 ()
-----------------	--------------	--------------	---------------	------------------

2-3 현지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내용이 현지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점 매우 도움 (√)	4점 도움 ()	3점 보통 ()	2점 도움안됨 ()	1점 전혀 도움안됨 ()
-----------------	--------------	--------------	----------------	-------------------

2-4 현지 수업방식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강의식 ()	토론 및 발표 (√)	세미나 ()	팀프로젝트 (√)	기타방식 ()
------------	----------------	------------	--------------	-------------

2-5 현지 파견기관의 시설은 만족스러웠습니까?

5점 매우 만족 (√)	4점 만족 ()	3점 보통 ()	2점 불만족 ()	1점 매우 불만족 ()
-----------------	--------------	--------------	---------------	------------------

3. 다음은 현지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현지 숙소를 찾게된 경로를 적어주세요

ISEP 프로그램 지정

3-2 숙소의 형태, 하숙 및 룸메이트 숫자, 비용을 적어주세요

- 숙소의 형태 : 기숙사(√), 아파트 (), 스튜디오 (), 하숙 ()
- 룸메이트 : 6명
- 렌트비 (1개월 기준) : 520유로(=83만원, 1인실)

3-3 주거 환경이 만족스러웠습니까?

5점 매우 만족 (√)	4점 만족 ()	3점 보통 ()	2점 불만 ()	1점 매우 불만 ()
-----------------	-----------------	-----------------	-----------------	--------------------

3-4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 2주에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주시고, 주방이나 샤워실이 넓고 쾌적함. 화장실도 따로 있는 점이 좋았음. 히터나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 메시지를 남기면 다음날 아침 일찍 와서 빠르게 해결해주심. 소통도 빠르고 원활함. 다만, 후라이팬 상태가 좋지 않고, 전자레인지나 식기세척기가 고장났기는 했지만 바로 교체해주셔서 빠른 대응이 좋았음. 주변에 마트가 많아서 위치도 참 좋음.

3-5 현지 생활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친구와 함께 같은 나라(다른 지역)으로 가서 크게 외로움은 없었지만, 혼자 갔다면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혼자서 이것저것 해보고 온전히 혼자서 즐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출국 후 한 달 후가 가장 외롭더라고요.

4. 다음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소요된 경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4-1 프로그램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적어주세요.

항공료	학비	현지생활비	기타
₩984,000	₩343,289 (독일어 수업)	₩0 (여행비 제외)	₩9,425,074 (여행 및 여가비)

4-2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해 지불한 비용 중 만족스럽지 못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항공료 ()	프로그램비 ()	숙박비 ()	식비 ()	기타 (√)
---------	-----------	---------	--------	---------

4-3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ISEP의 지원을 많이 받아 부담이 많이 줄었음.

5. 다음은 준비과정 및 여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5-1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학교 공지 (√)	국제교육원 홈페이지/브로셔 ()	교수님 권유 ()	친구 권유 ()	기타 ()
-----------	-----------------------	------------	-----------	--------

5-2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실무경력 쌓기 ()	어학능력 향상 (√)	전문 넓히기 (√)	해외여행 (√)	기타 ()
-------------	-------------	------------	----------	--------

5-3 오리엔테이션은 몇 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기타 ()
--------	--------	--------	-----------	--------

5-4 이번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비용 (√)	어학능력 ()	학교생활 ()	학교규정 ()	기타 ()
--------	----------	----------	----------	--------

6. 금년도 참가자로서 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하여 바라는 점들을 적어주세요.

저는 ISEP 프로그램으로 지원도 많이 받고, ISEP내에서도 장학금을 신청해서 받았지만, 같이 갔던 친구의 경우 asem duo 장학금도 받을 수 없고,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없었습니다. 장학금에 지원조차 해볼 수 없어서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되었다고 하는데 지원이라도 해볼 수 있는 장학금이 있다면 경제적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